

2023-12-11 (2023-45호)

12월 11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연준 교통정리 후 산타 랠리 올까

서울, 12월11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주요국 통화정책회의와 핵심 경제지표 결과 따라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285-1,330원이다.

금주 핵심 이벤트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정책금리 동결 전망은 압도적이지만 최근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연준) 긴축 종료와 함께 내년 금리 인하 기조를 적극 반영해온 터라 올해 마지막 FOMC회의를 통해 당국과의 정책 간극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예상을 웃돈 11월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결과로 미국 경기 경착륙 우려는 조금 덜었지만, 내년 3월 금리 인하 확률은 하향 조정됨에 따라 달러는 강세 반응했고, 이에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FOMC회의에 앞서 미국 소비자·생산자물가가 발표되고 회의 결과 따라 연말 산타 랠리 여부와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래저래 FOMC 이벤트를 전후해 국내외 외환시장은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최근 달러/원 환율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하루가 멀다하고 10원 이상 등락하는 등 양방향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금주는 대외 시장 상황에 따른 실수급 대응까지 가세해 환율은 한층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울러 연준보다 훨씬 통화정책 완화 기대가 깊은 유럽중앙은행(ECB) 회의 결과에 따른 유로 반응도 변수다.

또한, 주 후반에는 중국 핵심 경제지표도 나온다. 11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0.5% 하락해 2020년 11월 이후 3년 만의 최대폭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이런 가운데 금주 발표될 11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을 통해 중국 경제 여건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외 일정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12월11일(월)

- ⊙ 관세청: 12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 (08: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KTB 국제 컨퍼런스 (15:00)

12월12일(화)

- ⊙ 금융감독원: 원장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11:40)
- ⊙ 기획재정부: 24년도 제1차 G20 재무차관회의 사전 보도 (12:00)

12월13일(수)

- ⊙ 한국은행: 2023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 (06: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08:00)
- ⊙ 통계청: 2023년 11월 고용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2023년 11월 고용동향 분석 (09:00)
- ⊙ 한국은행: 2023년 10월 통화 및 유동성 (12:00)
- ⊙ 금융감독원: 2023년 11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12:00)

12월14일(목)

-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09:00)
-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12월호) 발간 (11:00)

12월15일(금)

- ⊙ 기획재정부: 2023년 12월 최근 경제동향 (10:00)
- ⊙ 기획재정부: 2023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11:0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12월11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12월11-18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증가율 YY	11월	10.1%	10.3%
12월11-18일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	11월	1,300.0B	738.4B
12월11-18일		중국	FDI (YTD)	11월		-9.40%
12월12일	00:00	미국	고용주이	11월		114.16
12월12일	08:50	일본	기업상품물가지수 MM	11월	0.2%	-0.4%
12월12일	20:00	미국	NFIB 기업낙관지수	11월		90.70
12월12일	22:30	미국	CPI MM, SA	11월	0.0%	0.0%
12월13일	04:00	미국	연방예산	11월	-300.00B	-67.00B
12월13일	08:50	일본	단칸 대형 제조업체 업황지수	4분기	10	9
12월13일	19:00	유로존	산업생산 MM	10월	-0.3%	-1.1%
12월13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12월4일 주간		181.1
12월13일	22:30	미국	PPI MM	11월	0.1%	-0.5%
12월14일	08:50	일본	가계류주문 MM	10월	-0.5%	1.4%
12월14일	22:30	미국	수입물가 MM	11월	-0.8%	-0.8
12월14일	22:30	미국	수출물가 MM	11월	-1.0%	-1.1
12월14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2월4일 주간	221k	220k
12월14일	22:30	미국	소매판매 MM	11월	-0.1%	-0.1%
12월15일	00:00	미국	기업재고 MM	10월	0.0%	0.4%
12월15일	09:30	일본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SA	12월		48.3
12월15일	10:30	중국	주택가격 YY	11월		-0.1%
12월15일	11:00	중국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YTD)YY	11월	3.0%	2.9%
12월15일	11:00	중국	산업생산 YY	11월	5.6%	4.6%
12월15일	11:00	중국	소매판매 YY	11월	12.5%	7.6%
12월15일	18:00	유로존	HCOB 제조업 PMI 잠정치	12월	44.5	44.2
12월15일	18:00	유로존	HCOB 서비스업 PMI 잠정치	12월	49.0	48.7
12월15일	22:30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1월	2.00	9.10
12월15일	23:15	미국	산업생산 MM	11월	0.3%	-0.6%
12월15일	23:45	미국	S&P글로벌 제조업 PMI 잠정치	12월	49.1	49.4
12월15일	23: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잠정치	12월	50.5	50.8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2월12일 (화)

⊙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 시작 (13일까지)

12월13일 (수)

⊙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결정 발표 (14일 오전 4시), 제롬 파월 의장 기자회견 (14일 오전 4시30분)

12월14일 (목)

⊙ 스위스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및 기자회견 (오후 5시30분)

⊙ 노르웨이 중앙은행 금리 결정 및 통화정책보고서 발표 (오후 6시)

⊙ 영란은행 금리 결정 발표 및 회의록 공개 (오후 9시)

⊙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결정 발표 (오후 10시15분),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기자회견 (오후 10시45분)

▶ 주간 세계 5대 이슈

⊙ 연준 금리 경로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2022년 3월부터 525bp를 인상한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집중하고 있다.

연준이 2024년 초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은 주식과 채권의 대대적인 랠리를 부추겨, S&P500지수는 2023년 최고 종가를 기록했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에 가깝게 낮아졌다.

12일 발표되는 미국의 11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시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보합을 기록한 바 있다.

⊙ ECB와 영란은행

트레이더들이 내년 가파른 금리 인하 베팅이 지나치다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것은 미국에서만 아니다.

14일 스위스 중앙은행, 노르웨이 중앙은행, 영란은행, 유럽중앙은행(ECB)가 모두 정책회의를 갖는다. 노르웨이를 제외한 모든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내년에 연준이 5차례, ECB가 6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해 확답을 내릴 수 없는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런 압박에 어떻게 대처할 지가 관심거리다.

⊙ 경기침체 가능성

2021년 말부터 대두된 경기침체 예측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대형 투자은행의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예상된 미국의 경기침체와 연준의 빠른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을 고수하는 이들과, 베팅을 접으라고 권하는 이들로 크게 나뉘어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위축되지 않고 둔화될 것이며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도이치은행은 완만한 경기 침체에 이어 무려 175bp의 금리 인하로 2024년 말까지 S&P500지수가

약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주식과 채권 랠리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주 발표될 구매관리자 지수(PMI) 수치를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내년 중국 경제의 방향

중국 경제가 엇갈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정책 결정권자들이 곧 2024년 어젠다를 설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갖는다.

정부 고문들은 5% 성장 목표 유지를 권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지금까지의 조치는 대부분 미흡했으며, 소비자와 공장 관리자들의 심리는 취약하다. 고르지 못한 부동산 시장 성장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국에는 야성적 충동이 돌아와야 한다.

수출이 예상 밖의 반등세를 보였음에도 수입이 깜짝 감소해 내수 부진을 시사한 가운데 15일 발표될 소매판매 데이터가 관심거리다.

무디스의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의 결정적인 이유였던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방 안의 코끼리로 남아 있다.

⊙ 2022년 수준으로의 복귀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 5일 작년 4월 이후 최고치인 44,490달러까지 상승했다. 즉, 2022년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 업체들, 테라폼랩스, 쓰리애로우즈캐피탈, 셸시우스, FTX 등이 무너지기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승인할 것이라는 희망과 내년 연준 금리 인하에 베타하는 투자자들이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결과는 장담할 수 없으며, 이에 JP모건은 비트코인 랠리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단독) - 12월 말 종료 한은-국민연금 외환스왑 연장 긍정적 협의 중 - 복수 관계자

서울, 12월8일 (로이터) 이지훈·박예나 기자 -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12월 말 만료되는 외환스왑 계약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은 밝혔다.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양 기관에서 서로 연장하는 쪽으로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 역시 "연금 측과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측 또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4월 한은과 국민연금은 올해 말 만기인 350억달러 한도의 외환스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같은 발표가 있었던 당일 달러/원 환율은 10원 이상 급락할 만큼 국민연금은 국내 외환시장의 주요 수급 주체로 꼽힌다.

대외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달러/원 환율이 1,300원대로 다시 오르는 등 환율 상승 변동성 불씨가 여전히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요가 외환수급 불균형을 촉발시킬 위험은 남아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협의 중인 외환스왑 계약 만기와 한도와 관련해서는 위의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정해진 틀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편집 문윤아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칼럼) - 연준, 금리 인하해도 “고금리 장기화” 기조 유지할 수 있다

제이미 맥기버 로이터 칼럼리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랜드, 플로리다주, 12월7일 (로이터) -

연방준비제도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를 바꾸지 않고도 내년 정책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장이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거나 둔화시키지 않는 "중립금리"에 대한 연준의 추정치가 2.5%임을 감안할 때, 그 이상의 금리는 사실상 여전히 경제에 부담을 준다. 즉, 연준의 용어로는 정책이 여전히 "제약적"으로 유지된다는 뜻이다.

현재 연방기금금리는 5.25~5.50%이며,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내년 말까지 약 4.00%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 부재를 감안할 때 이 정도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선부른 판단일 수 있다고 불안해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립금리보다는 150bp 정도 높은 수준이다.

금리 4.0%는 2022년 3월 긴축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보다 훨씬 높으며, 불과 1년 전 시장이 예상한 2024년 말 금리보다도 약 1%포인트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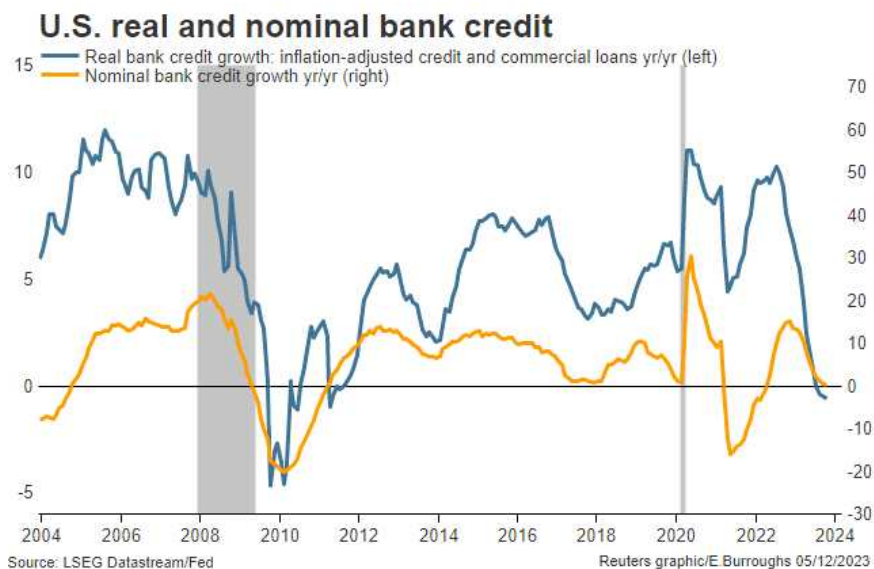
또 지난 사이클의 정점이나 지난 20년 중 대부분 기간의 금리보다 훨씬 높다.

정책금리 인하 없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서 실질 금리는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3.5%인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목표치까지 하락한다면 연준은 실질 금리를 낮추지 않고도 150bp를 편안하게 인하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도 고금리 장기화가 유효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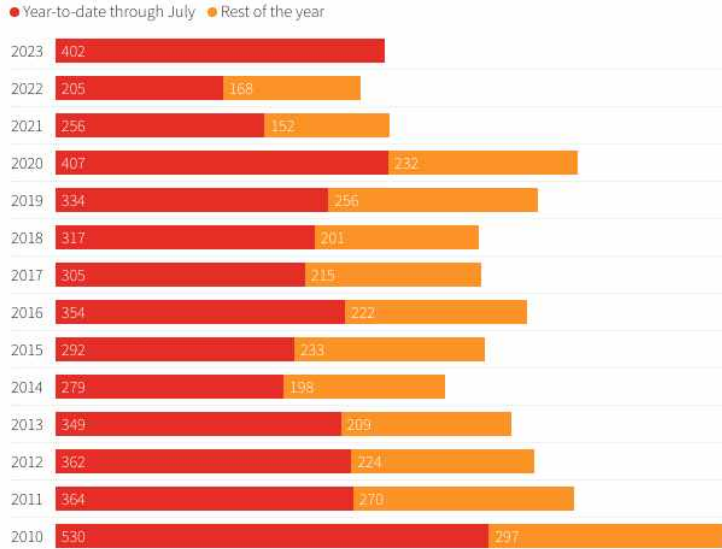
전 뉴욕 연방은행 애널리스트인 알렉스 에트라 엑산테데이터 수석 거시 전략가는 "현재로서는 이것이 가능성 면에서 가장 그럴듯한 기본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고도 이전에 경험했거나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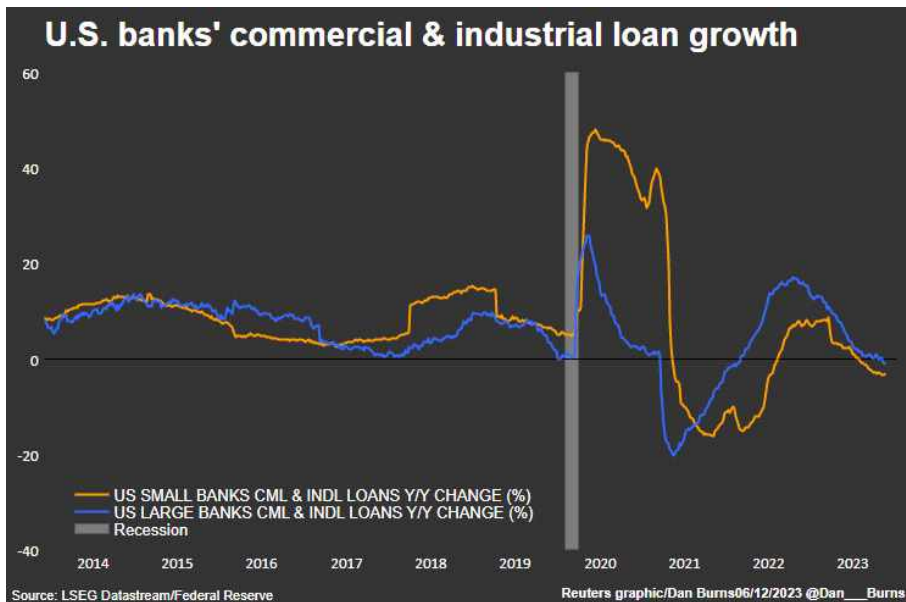
U.S. corporate bankruptcy filings highest since 2010

Filings in the first seven months of 2023 surpassed total filings for the previous year



Note: Includes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covered U.S. companies that announced a bankruptcy between Jan. 1, 2010, and July 31, 2023.

Chart by Bansari Mayur Kamdar, Reuters



지난 30여 년 사이 연준이 정책금리를 과거보다 더 오래 사이클의 정점에서 유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선물시장 프라이싱에 반영된 것처럼 내년 5월에 첫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마지막 인상 이후의 공백은 10개월로 최소 1950년대 이후 두 번째로 긴 기간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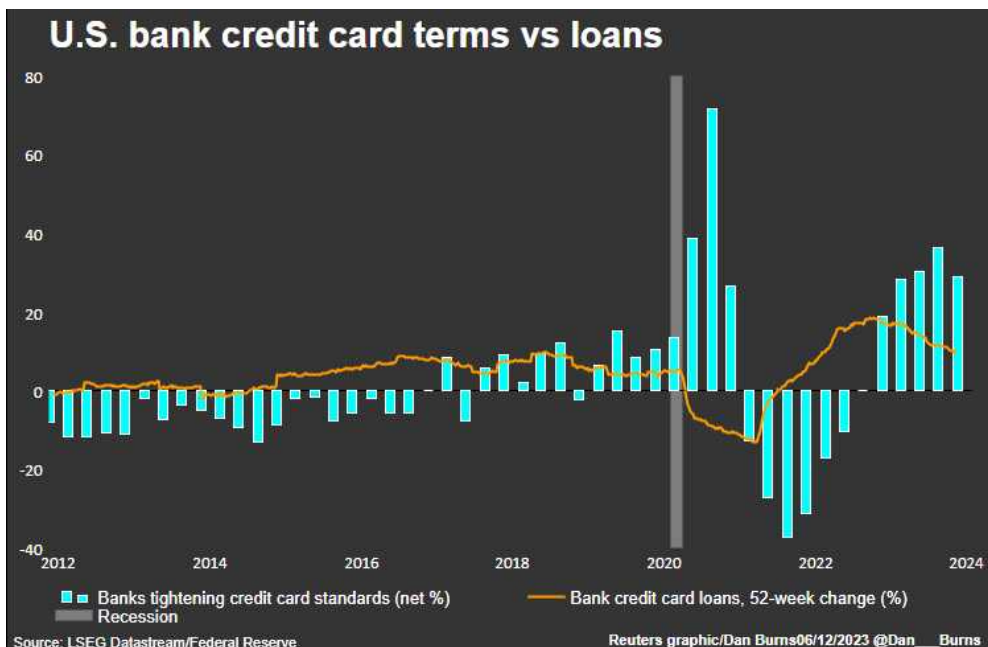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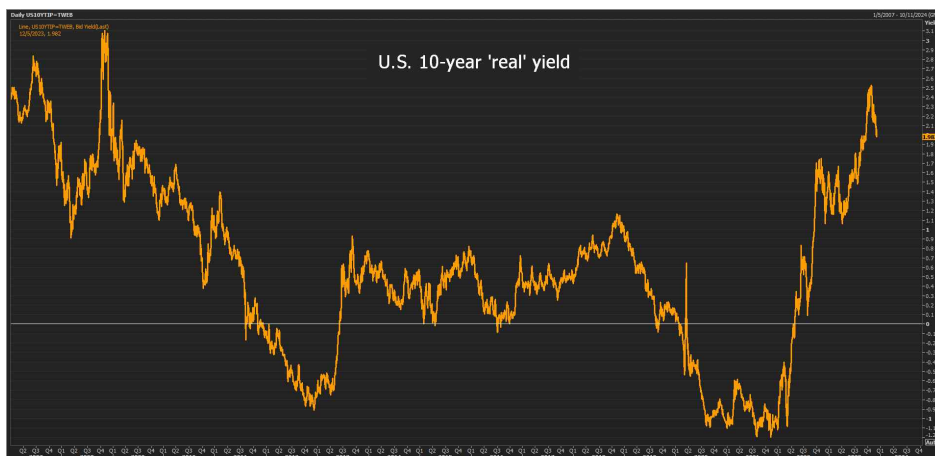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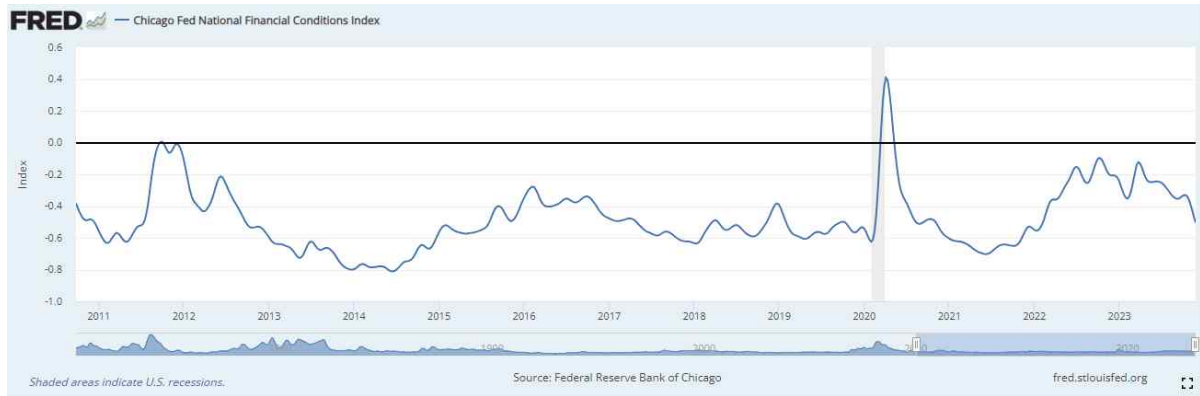
이는 금리를 "더 오래 더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준 관계자들이 올해 내내 주장했던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시장의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금리를 예상보다 빨리 인하할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2월1일 사전 준비된 연설과 질의응답 세션에서 이러한 발언에 반박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에 채권 수익률이 하락했고, 달러는 약세를 보였다.

적어도 시장 기반 지표로 볼 때 금융 여건은 상당히 완화되었다. 시카고 연방은행의 미국 금융여건 지수 (FCI)는 작년 2월 이후 최저치이며, 골드만삭스의 FCI는 4개월 만의 최저치다.

그러나 지난 한 해 월가의 금융 여건이 완화되었다면, 실물경제의 금융 여건은 긴축됐다.



연준의 대출 담당자 서베이 등 다양한 '실물경제' 지표들은 은행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대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연체와 파산이 증가하는 등 작년 3월 이후 연준의 금리 525bp 인상이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금융여건 지표는 연준의 정책 금리로, 이 금리가 경제 전반에 대해 부양적인지, 중립적인지, 아니면 제약적인지가 관건이다.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022년 초 2.4%로 잠시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거의 5년 동안 2.5%를 유지해온 장기 정책금리 추정치 중간값 등 경제 전망 요약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돌아온다고 가정하면, 이는 0.5%의 실질 중립금리를 의미한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지난주 일부 모델이 현재 통화정책이 25년 만에 가장 제약적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인플레이션을 장기 목표치인 2%로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동안 제약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리를 인하하고도 "고금리 장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신안나 기자)

((anna.shee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